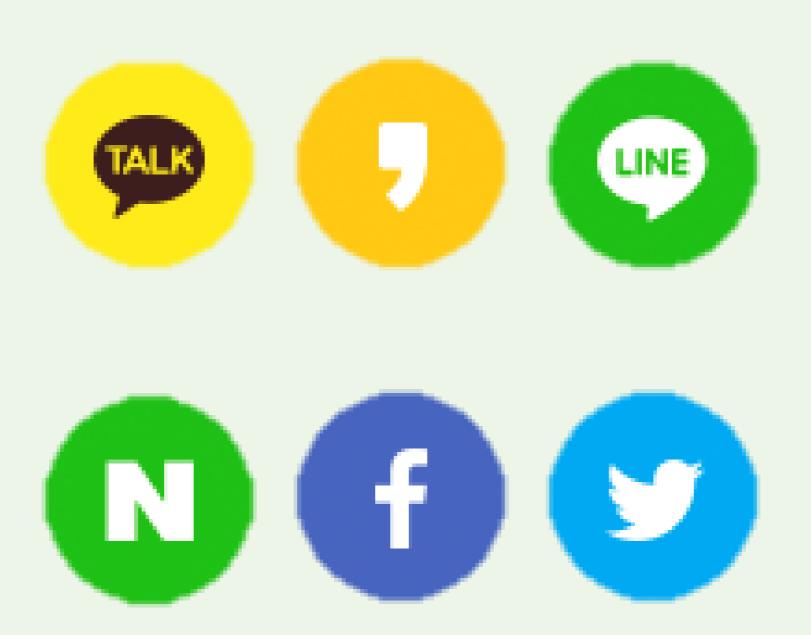


ZTHE11/2E



나는 갤러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다면 나도 오르게 꼰대가 되었을 수도 있다! 간단한 질문들로 나의 꼰대원을 따라하네요나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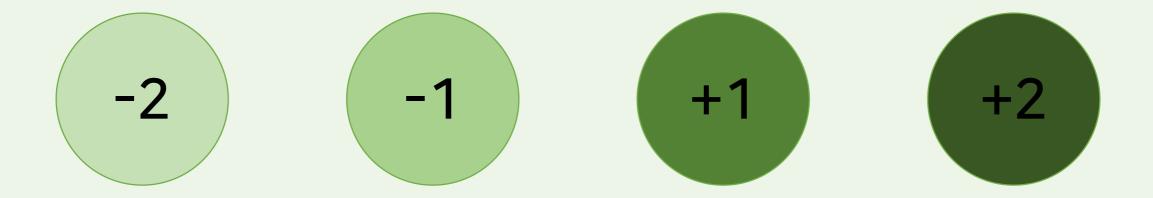
테스트 시작하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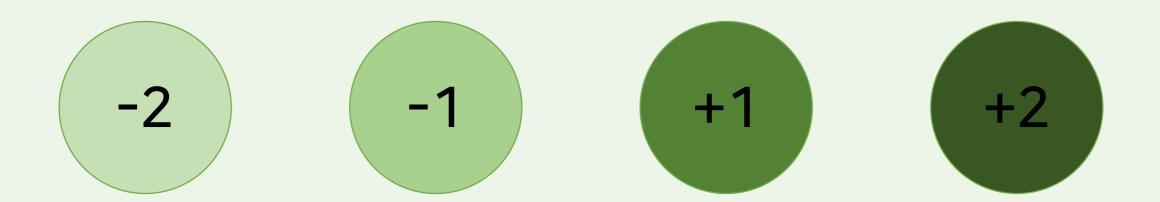
ZTHE11/2E

4 / 1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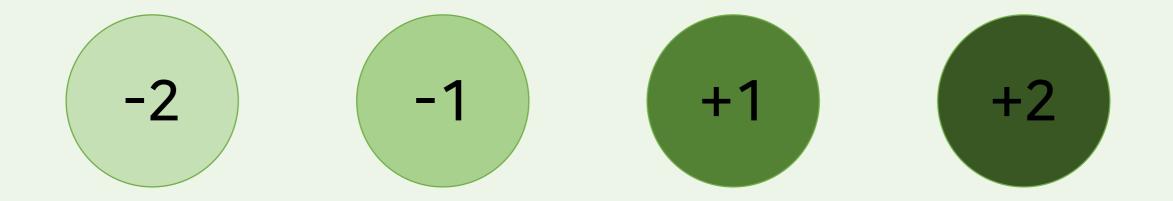
1.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말을 놓는것이 서로 편하고 좋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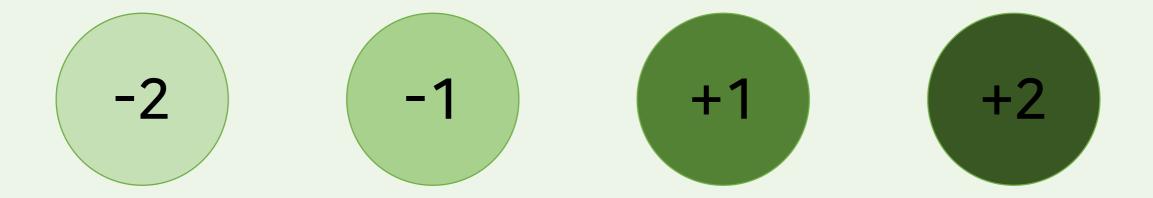
2. 연애사와 같은 사생활도 인생 선배로서 조언해 줄 수 있다.



3. 아이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는 말은 공감하지만, 실제로 뭘 배워본 적은 없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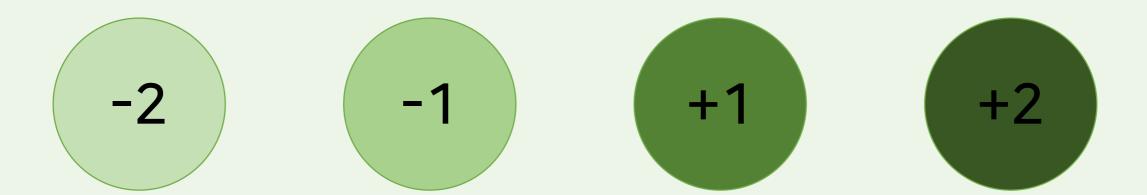
4. 약속 등의 이유로 회식에 불참하는 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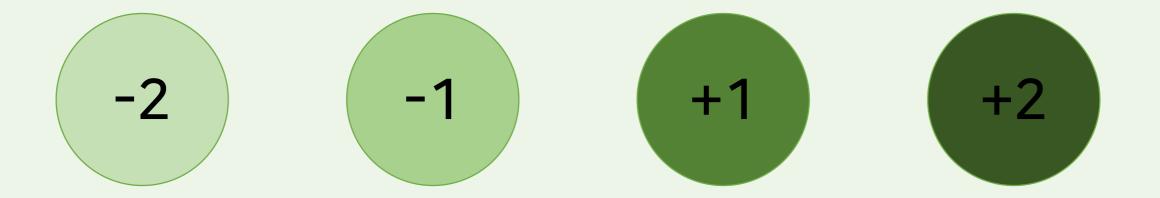
THE112E

8 / 1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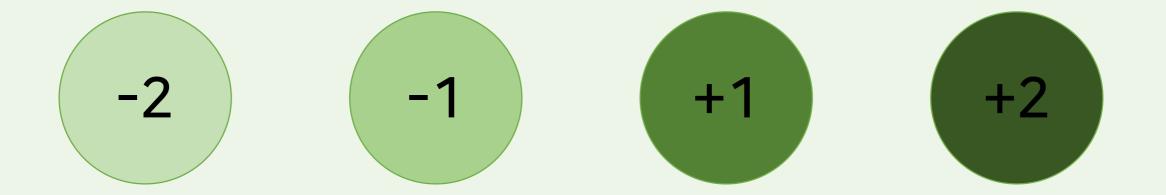
5. 요즘 애들은 노력도 없이 세상 탓, 불평 불만만 많은 것은 사실이다.



6. 뭐만 하면 '꼰대' 거리는 MZ세대에게도 문제는 많다.



/. 후배의 옷차림, 인사 예절등도 회사 생활에 포함되므로 지적해 주는게 좋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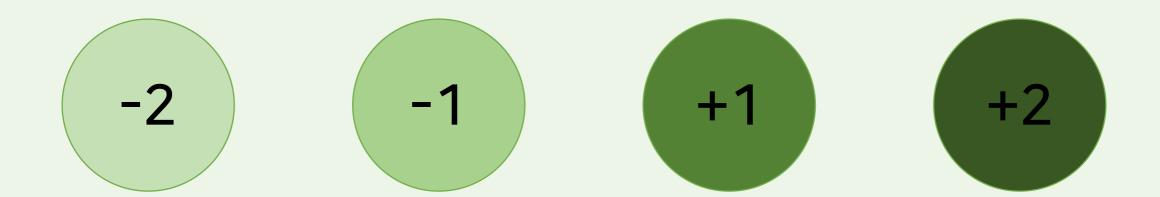
8. '〇〇란 〇〇〇인거야.' 라는 식의 진리 명제를 자주 사용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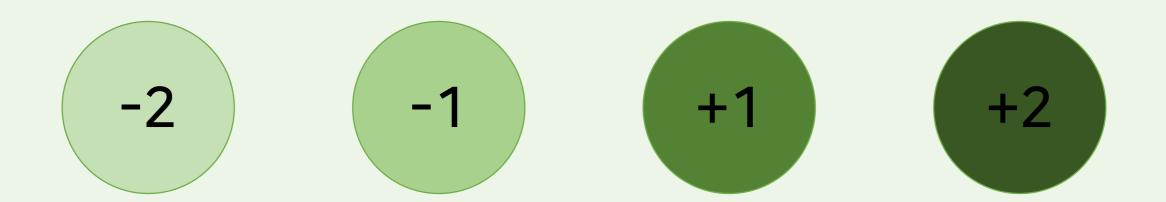
ZTHE11/2E

12 / 1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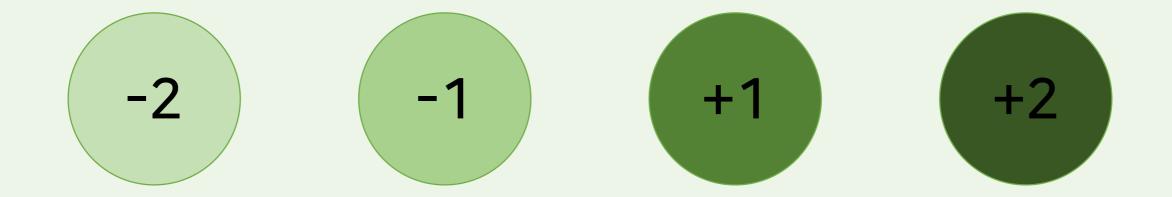
9. 나보다 열심히,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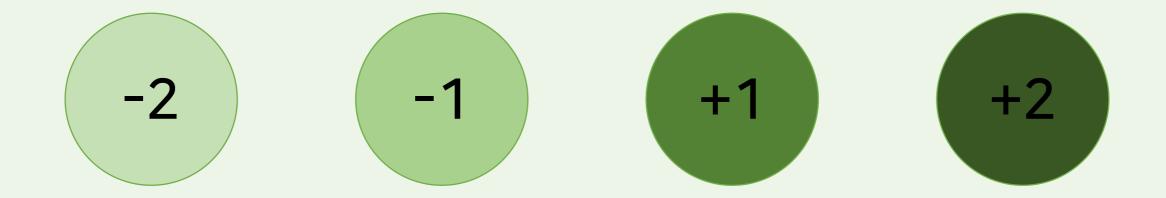
10. 아무리 휴가중이어도 회사에서 걸려오는 연락은 급한 일일 수 있으니 받아야 한다.



11. 내가 보낸 '수고해~'라는 메시지를 읽씹한 후배가 버릇 없게 느껴진다.



12. 나보다 먼저 퇴근하는 후배가 신경쓰인다.





एता यूरमञ्जू

김응수도 원과갈 극악무도 꼰대



- 당신은 꼰대중의 꼰대, 상꼰대입니다.
- 당신은 당신이 꼰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듭니다.
- 후배(또는 부하)가 당신을 맞춰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
- 종종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건지 답답합니다.
- 왜 나만큼 열정있는 후배들이 들어오지 않는지 속상합니다.
- '요즘 애들은…' 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
- 우리나라의 미래를 자주 걱정합니다.

